하반기부터 물류시스템에도 인증制 도입

기표원, 이르면 9월부터… 유통업체, 원료 도착서 포장 · 운송까지 표준설비 갖춰야 'LS마크'

물류표준설비인증

올 하반기부터는 유통 · 물류업체의 물류시스템 전반을 인증받게 된다.

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종래 유통 ·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파렛트 · 지게차 · 컨베이어 · 산업용PDA 등 제품별로 받던 LS마크 (물류표준설비 인증마크)를 확대, 올 하반기 물류표준설비의 시스템 전반을 인증하는 개선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물류시스템 인증제도는 물류설비 사용자에 대해 제품의 운송에서 보관 · 분류 · 포장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물류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는 선진형제도.

이 인증을 받은 유통 · 물류업체와 거래를 하는 기업은 시스템 호환성이 확보돼 납품시 복잡한 확인절차를 줄임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.

기표원은 오는 9월 물류시스템 평가인증 규격 개발 작업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, 이달부터 개선된 정보 · 시스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, 50여개 유통 · 물류센터의 물류표준설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.

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올 하반기에는 표준설비 · 정보기기 · 물류시스템 등 분야별 100명의 전문 물류표준기술평가단을 구성, 현장심사 · 기술지도 방식의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한다.

또 시스템인증을 받은 기업은 산자부 · 건교부 · 해수부가 올해부터 공동 실시하는 '종합물류기업 인증'에서 중복심사 방지차원의 점수 부여 및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우대를 받게 된다.

※ 종합물류기업인증 :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부 · 건교부 · 해수부가 공동으로 종합물류전문기업을 인증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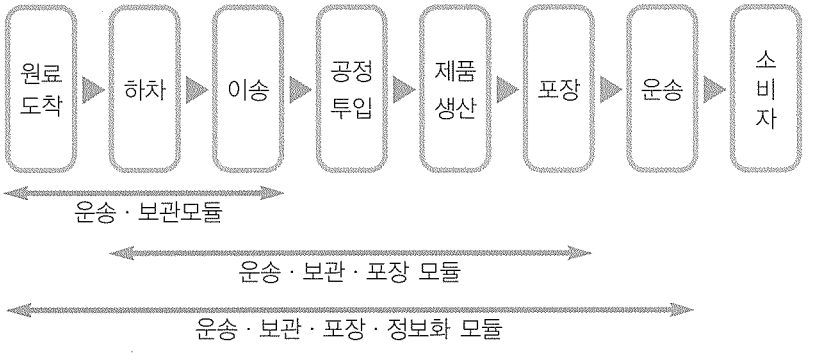
기표원은 지난 '04년 7월부터 제품별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를 시행, 4월 현재까지 78개 업체 174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다.

물류시스템과 심사

물류시스템(모듈)을 인증대상에 포함

○ 물류설비 사용자에 대하여 운송, 보관, 분류, 포장 및 자동화설비 등 각 개별 설비 3~6개 조합된 모듈 및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

* 모듈별 물류표준설비 표준규격 제정 및 ULS 연계성 확인(필요한 규격 개발에 연구용역 실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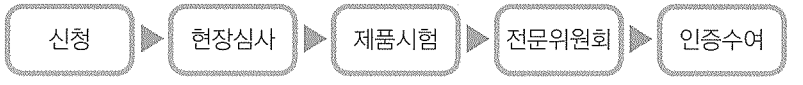
〈 물류모듈시스템 예시 〉

심사반 구성 및 심사절차 전문화

□ 현장 심사반 확대 및 심사절차 전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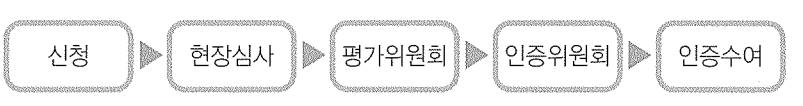
○ 현행

- 인증심사원 2명이 물류표준화 분야와 제품의 공정관리 및 제품관리 등 4분야를 전부 심사
- 인증심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하여 인증심사기준 및 제품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상정



○ 개선

- 현장 심사팀을 정보기기, 소프트웨어, 시스템 및 공정관리 전문가 등 4명으로 확대 개편
- 세부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와 물류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를 심의하는 최종 인증위원회를 구성 · 운영
- 평가위원회는 전문가 풀에서 선정하여 구성
  - 구성 : 분야별(수송, 운반, 보관, 정보)로 15인 이내로 구성
  - 기능 : 현장심사 및 제품시험결과 심의



심사결과를 서비스 차원에서 기업에 제공

○ 물류표준설비 인증 목적중의 하나는 물류표준 설비의 보급 · 확산을 통한 표준화율 제고에 있음

○ 전문가 풀에 의한 심사반 구성 · 운영을 통하여 현장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업체의 물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토록 함.

○ 현장심사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업에게 피드백하여 선진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유익한 정보로 활용토록 함.

⇨ 물류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효과가 있도록 심사항목을 조정